



6 Focus
특별기획 세계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컬럼비아대 지역 의료센터 코홀 매니저
 대학과 뉴욕시, 그리고 주민이 만들어내는 지역 발전전략과 대학의 상생전략

동대신문

금주의 열 세상을 잘 알고, 최고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고 의존하지 않으며 번뇌가 물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 슷다파타 사품 219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80호 2009년 (불기 2553년) 9월 28일 월요일

Cover Story 2009 중앙일보 대학평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연구지원과 평가 더욱 엄격해져야

평가지표중 교수연구 관련 40위 이내 전무 ... 연구 촉진 시스템 도입 시급
 교수들 “충분한 지원 선행 필요” 학교 “지원과 연구성과 평가 동시” 팽팽

지난 23일 중앙일보가 실시한 '2009 대학평가'가 발표됐다. 우리 대학은 종합순위 27위다. 이를 바라보는 학내 구성원들은 매우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대학평가가 이처럼 당황스러운 이유는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上昇)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지표 중 비중(比重)이 높게 다뤄지고 있는 교수 연구 부문에서의 낮은 평가는 충격적이다.

국제화가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31위로 나타나 그나마 고무적일 뿐, 교육여건과 재정이 37위, 평판도는 23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교수연구 부문은 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하락한 38위였다. 그나마 기술이전료 수입이나 지적재산권 등록이 큰 폭의 상승(각각 8계단, 11계단 상승)을 기록한 것 이외에 40위권 안에 든 연구 관련 지표는 단 한가지도 없었다.

게다가, 평판도 부문에서 고시합격자수가 15위,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합격자 수가 11위, 상장기업 임원 수가 12위로 나타나 재학생과 동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점에서 나온 결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 학내 구성원 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수사회 역시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대폭적인 지원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문 편수 당 성과급이 상실대만 하더라도 1편당 3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대학은 1편당 100만원에 불과해 교수들의 연구사기를 진작시키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교수들의 지적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평가결과에서도 계

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는 51위로 경쟁대학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열평균 교수당 외부연구비는 21위로 외부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연구에 임하고 있는 교수들이 사기가 좋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대의 경우 자체연구비가 61위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은 28위, 인문사회 교수당 SSCI 논문 건수는 12위에 성적을 올렸다.

단순비교가 어렵겠지만, 이번 평가결과와 학교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교수들이 가진 자부심에 걸맞은 연구성적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이번 대학평가에서 유독 교수들의 연구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수 개인의 연구 역량을 분발시킬 수 있는 연구성과 촉진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교수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학 측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부족과 정년(停年)교수의 높은 비율'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과학대학의 A교수는 “우수 논문의 경우, 연구비가 최소한 편당 200만원 정도는 지원돼야 한다”며 “연구 실적에 대한 보상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교수들의 논문 편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과대의 B교수는 “우리대학의 경우,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의 비율이 높는데, 젊은 교수에 비해 연구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로교수들의 분발을 조심스레 촉구하기도 했다.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의 비율은 약 50%정도다. 우리대학의 경우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이 연구 성과가 저조하고 주로 젊은 교수들에 의해서 연구가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비나 성과급의 경우 교수들이 논문을 펴내야 지급되지만, 그나마 지원금이 너무 적어 정년보장 교수들이 연구 성과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동대신문이 우리대학 교수들의 지난 3년간 연구성과를 교수 개인별로 취합해 종합해 분석한 결과 우리대학의 교수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정년보장이 될수록 연구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보장이 된 원로교수들의 경우 1년에 논문을 한편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교수 연구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일침(一針)을 가했다.

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성과 제도 등 본부 측의 지원이 강화된다면 ‘교수 연구’부분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을까. 최근 뚜렷한 평가 지표 개선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 자체연구비 지원 확대가 연구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본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연구성과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기업에 의해 재단이 바뀐 중앙대나 재단이 대대적인 지

원을 펴고 있는 건국대의 경우 최근의 평가상승 분위기를 이끄는 동력으로 충분한 지원을 꼽고 있기도 하다.

이번 교수 연구 부문 결과와 관련해 최순열 학사부총장은 “교수의 대내외적 연구 활동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물질적 인프라, 연구비 지원, 교수들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보상 제도 등의 부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연구지원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 연구’평가지표의 경우, 분명 단기간에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 또 무조건 연구성과를 올리라고 독려(督勵)하기만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충분한 지원과 연구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함께 할 때 선순환구조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가결과는 누구의 탓을 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省察)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부문의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교수사회 역시 스스로가 대학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원이 없으므로 연구성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수사회와 학교당국의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을 촉구한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추석 연휴로 인해 다음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1481호는 10월 12일 자로 발행되오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재학생 법회를 열며

정각원장 법타스님

“그대여, 이곳에는 괴로움도 없다. 이리 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부처님의 성도 후, 바라나시에 살고 있던 ‘야사’라는 청년은 당시 그 도시의 재벌의 아들로서 친구들과 어울려 온갖 가무와 유희를 즐기며 생의 의미를 찾다가 그만 염증을 내고 괴로워한다. “아아, 참으로 싫다! 아아 참으로 싫다!”

그는 환락이 주는 허무와 고독에 몸부림치다 부처님의 처소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부처님은 야사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곳에는 괴로움도 없다. 이리 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수행본기경-

재벌의 아들 야사는 그 후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야사와 같은 최상류 가정의 아들이, 더구나 재주 있고 학식 있는 유망한 청년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비구(比丘)가 되었다는 사건은 바라나시의 젊은 청년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 줄을 이어 스님이 되었으니까요.

동악에도 가을빛이 완연합니다. 뜨거운 햇살이 서늘한 바람에 밀려버렸고, 캠퍼스를 오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더욱 생동감이 넘칩니다. 중간시험, 취직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지만 목석의 후배들에게서 청춘의 활력과 자신감을 느낍니다.

명색이 103년 전 조계종 선각스님들에 의해 ‘홀륭한 불자 일꾼, 국가의 대들보, 지도자’ 양성을 간학 이념으로 세워진 동국대학교에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풍부한 불교소양을 갖춘 수 있는 기회와 제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에 정각원에서 재학생 누구나 가까이 참여할 수 있는 재학생법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개교 이래 최초이며 재학생들에게 필요하고 다양한 주제를 택하여 불교를 이해하고 나아가 참된 불자가 되는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동국대 출신과 교직원도 설사 불교도가 아닐지라도 불교에 무지하고 무관해 하는 것이 결코 자랑일 수 없습니다. 재학생 법회는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보람과 자신감 갖춘 불자 동국인, 동국에서 배출된 불자지도자의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재학생들의 신행활동은 법회 참여로 평가되어 각종 장학선발에 우선 반영할 것입니다. 신심 강한 학생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건학이념과 다양한 불교인재양성의 목적에도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여러분! 정각원은 여러분의 쉼터입니다. 재학생 법회는 웃음이 필요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 여유가 필요할 때 곁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금주의 동대신문 Hot Issue

- 4 중앙일보 대학평가, 어떻게 봐야하나
- 5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 첫 상영회
- 6 해외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 8 문과대학 인문주간 행사, '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 9 지장 신앙 총망라한 백과사전 '지장'
- 12 EBS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 EIDF

신종플루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신종플루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감염 증상이 있거나 거주지역에서 치료를 받아 격리치료를 받으신 분들에게서는 즉시 학교(상황실 02-2260-3699)로 연락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단체 행사(개강총회, 세미나,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에티켓을 철저히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걱정보다는 진료를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거점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으세요.



충분한 휴식, 수분섭취
 편히 쉬고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예방에 좋습니다.

□ 37.8 °c 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치료거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중구 거점병원 : 국립의료원 (1588-1775) 백병원 (2270-0114) 송도병원 : 2231-0900

dongguk UNIVERSITY
 동국 미디어 센터 캠페인

2009학년도 상반기 학생회 감사 마무리

자료제출 지연, 영수증 누락 등 개선점 올해도 여전히

2009학년도 상반기 중앙감사 결과, 총학생회 등 중앙자치기구 및 다수의 단과대들이 허술한 예산집행과 학생회비 사용내역 누락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감사는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특별감사위원회가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를 감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부분의 단과대가 지각 제출한 것이 문제였다. 또한 감사 자료가 많이 누락된 점도 지적되었다.

이번 감사에서 총학생회는 감사자료 지각 제출과 지나친 사비 각출로 경고 2회를 받았다. 경영대 역시 금전출납부 서식 오류와 일부 누락으로 경고 2회를 받았다. 문과대는

회의록 작성 미흡으로 경고 1회를 받았다.

법과대와 사회과학대, 예술대, 동아리연합회는 회의록 작성 미흡과 금전출납부 서식 오류 또는 일부 미납으로 인해 예산정지 1주 징계를 받았다. 이과대 또한 영수증 누락과 사업 평가 문서화 오류 등으로 예산정지 2주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도 바이오시스템대는 전반적 자료 제출 미비와 감사 태도 불성실 등으로 무기한 예산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예산을 사용할 시에는 사업계획서 첨부 뒤 총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불교대 역시 공약평가서 누락, 금

전출납부 파손 및 서식오류, 영수증 누락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 10% 징계를 받았다. 사법대는 금전출납부 서식 오류, 사업계획서 부실 등으로 인해 예산 삭감 5%를 받았다. 삭감된 예산은 총학생회로 이전될 예정이다.

공과대는 사업계획서 작성 미흡과 영수증 서식 오류로 경고 2회·주의 2회를 받았다.

한편 총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장의 사퇴로 비대위가 세워지지 않아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반기 감사에는 대다수의 단원들이 자료제출 시한 초과와 회의록 작성 미흡, 학생회비 사용내역과 사

업계획서·평가서 등을 누락하거나 분실해 징계를 면하지 못했다. 양동석 총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더 의욕적인 일을 했던 단위가 서식오류나 증빙자료누락 등으로 인해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되어 안타깝다. 하지만 앞으로 학생회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회비가 등록금과 분리 고지되면서 학생회비 납부율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어 각 학생자치기구들의 사업이 줄어들 것이 아쉽다”며 학생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 miro@dongguk.edu

신종플루 확진환자 확산 ‘비상’

확진환자 5명 모두 완치, 추석 조심해야

우리대학에서도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늘어나 비상이다. 이에 대학본부는 확진(確診)환자를 공결(公缺)처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대학본부 측에 의하면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지난 8일 처음 발생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총 5명, 추정 의심환자는 3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현재까지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5명은 모두 완치(完治)됐고, 추정 의심환자 3명 중 2명은 확진검사에서 음성(陰性) 판정을 받았다. 추정 의심환자 중 한 명은 확진검사를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졌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치료기간 및 격리(隔離) 해제 시까지 공결처리 됐다. 또한 해당 학생들이 일주일 이내에 참여했던 수업의 경우 휴강 됐고, 해당 강의를 함께 들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했다. 감염(感染) 의심학생들의 경우는 병원 방문 시점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까지 공결처리 됐다.

한편, 계속되는 신종플루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학교 측은 학생들의 건강을 고취(鼓舞)시키기 위해 팜플렛 배포 및 비타민제 증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지연 기자 lly88918@dgu.edu

불교계, 청년불자지도자 양성위한 장학금

조계종 총무원, 석암장학회, 능인장학회서 각각 기부 잇따라



▲ 재학생들에게 금강저를 선물하는 지관스님

조계종 총무원, 석암장학회 등을 비롯해 불교계 각지에서 우리대학 학생들을 위해 연이어 장학금을 기부했다.

우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우리대학 학생들 27명을 초청해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강현우(체육교육과4) 군 등 26명의 장학생들이 1학기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기금을 받았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받은 것은 적겠지만 공부하는 마음을 내는 박차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학업에 정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관스님은 샅된 마음을 물리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라는 의미로 ‘금강저’를 선물로 준비해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주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004년부터 인재발사의 일환으로 매년 1억원씩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우리대학에 지급해왔다.

한편 지난 19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스님-본교 이사장) 만불전에서 제70기 석암장

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석암장학금은 내원정사 산하 석암장학회에서 중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불자청년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2008학년도 5,000만원, 2009학년도 1학기 2,500만원의 장학금 지급에 이어 2학기에 우리대학 재학생 14명에게 2,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을 받은 14명(서울캠 9명/경주캠 5명)의 학생들은 1박2일간의 템플스테이도 가졌다.

내원정사 주지이자 우리대학의 이사장인 정련스님은 “석암장학회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장학회”라며 “열심히 공부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능인장학회(지평스님)는 금년부터 우리대학 불교청년지도자로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수여했다.

능인장학회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불교학과에 졸업없이 장학금을 쾌척해 온 바 있다. 현재까지 지급한 장학금은 총 13억 9천 5백여만원이며 750명이 수혜를 받았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임중연 교수팀 지원사업 선정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임중연 교수팀의 ‘치과용 무소음 고속 핸드피스 개발’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돼 2년 동안 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임 교수팀과 (주)두나미스 덴탈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 연구는 치아절삭시 사용되는 치과용 핸드피스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소음을 줄여 환자의 공포감과 번번히 소음에 노출돼 발생하는 의사의 청각장애를 줄이기 위한 연구다.

이 연구를 위해 임 교수팀이 보유한 ‘치과용 핸드피스의 스프링 캠 풀림방지 구조’ 등 4개의 특허와 기술을 회사에 이전했다. 또한 산학협력단은 정밀기계설계 엔지니어 및 연구 장소, 정밀측정 장비 등을 지원하며, 두나미스 덴탈 측에서는 중장기 연구개발 기획 및 시장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임 교수는 “핸드피스 고주파 소음 발생을 개선한 기술이 없다”며 “세계최초의 무소음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 1차 최종마감, 경쟁률 19.5대 1

총 1,236명 모집에 24,169명 지원

우리대학 2010학년도 수시 1차 원서접수를 지난 14일 날 최종마감 했다. 지난 3년간 13대 1을 상회하던 경쟁률은 이번 해에 19.5대 1로 대폭 상승했다.

일반전형은 총 573명 모집인원에 14,123명이 지원해 24.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일반전형의 연극학부는 총 25명 모집인원에 2,605명이 지원해 10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요 경쟁률로는 입학사정관제와 더불어 새롭게 도입된 ▲

자기추천자 전형이 14.49대 1 ▲ 리더십 전형이 12.56대 1 ▲ 다문화 가정자녀 전형이 4대 1로 나타났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 순위로는 ▲ 연극학부 104.2대 1 ▲ 체육교육과 52.6대 1 ▲ 문예창작학과 48.6대 1 ▲ 신문방송학과 47.63대 1 ▲ 사학과 46대 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10월 17일 1차 합격자에 한해 총 14,123명(인문계 9,525명, 자연계 4,598명)이 논술고사를 치를 예정이다.

제 5회 목errick가요제 개막 준비 한창

오는 10월 8일 대운동장에서 열릴 예정

목errick가요제가 오는 10월 8일 오후 6시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목errick가요제의 1차 예선은 25일 모두 153팀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중 약 50여팀이 2차 예선에 진출하게 됐으며, 2차 예선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2차 예선

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팀은 12팀에서 14팀 정도가 뽑힐 예정이다. 목errick가요제 예선 참가 학생들은 1차 예선에서는 노래의 한 소절씩을 불렀지만, 2차 예선에서는 노래 한곡을 완곡해야 한다. 한편, 동연제는 오는 10월 7일 대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이사장 정련스님, 첫 교직원 법회

대학평가 결과 유감, 대학 발전 신전략 필요성

이사장 정련스님이 취임 후 첫 교직원 법회를 가졌다.

지난 24일 정각원에서 열린 9월 교직원 법회에서 정련스님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유감을 표명하며 새로운 대학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사장

정련스님은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제 새로운 대학발전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견이 불여일행이다”라며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9 홈커밍데이 다음달 10일 개최

1,2부 나뉘어 동문 초청 행사 진행

2009 홈커밍데이 행사가 다음달 10일 오후 4시에 우리대학 각 단과대별 대형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홈커밍데이는 전체 동문들의 화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다.

제1부 ‘대학(원)별 만남의 장’에서는 각 대학원 및 학과 동문회 중심으로 친목다지기가 진행된다. 제2부 ‘화합 한마당 축제’는 전 동문이 참여하는 야외가든파티로 만해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동아로에서



이지연 기자
lly88918@dgu.edu

온심(溫心)

지난 15일, 만해관 로비에는 많은 법대학생들로 북적거렸다. 법대학생회에서 지난 15일부터 3일간 법대 학생 및 교수들에게 헌 책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중고책 장터를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인 것은 단지 책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만은 아니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중고책 판매로 생긴 수익금 일체를 용산 참사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법대 학생들의 의미있는 행사였기 때문이다.

권기홍 법대학생회장은 “사물함에 오래 방치된 책을 처분할 목적에서 판매를 시작했지만, 그 수익금 사용을 두고 고민하던 중 용산참사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 이르게 됐다”며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 좋은 취지(趣旨)가 전해

지자 법대 일반학생들은 물론 교수들도 자발적으로 책을 기부(寄附)했다. 이날 중고 서적을 구입한 법대 A학생은 “한권에 5~6만 원 정도 되는 전공서적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좋을뿐더러, 수익금이 용산참사 유가족들에게 기부된다니 구매자 입장에서도 뜻깊다”고 말했다. 또 법대 B학생은 “잠시 잊고 있었던 용산참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번 중고책 판매 결과, 총 40여권의 책이 판매돼 35만 2천원의 수익금이 모아졌다. 수익금은 오는 16일 용산참사 국민재판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유가족들의 슬픔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돈일지 모르지만, 유가족들을 향한 학생들의 온심이 함께 전달되길 바란다.

장충체육관 앞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차량 통행 편리, 대학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



장충체육관 앞 교차로의 불합리한 교통체계가 개선돼 우리대학의 차량 통행이 편리해졌다. 지난 23일부터 신호체계가 바뀌어 동호대교 쪽에서 우리대학 정문 쪽으로 좌회전이 허용됐고, 우리대학 정문 쪽에서 동호대교 방향으로 가는 우회전도 가능하게 됐다.

예전부터 장충체육관 앞 교차로에서는 동호대교 쪽에서 우리대학 정문 쪽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반대편인 동대문운동장 쪽 길로

올라가 P턴을 해야 했다.

또한 정문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우회전이 되지 않아 신라호텔 후문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이런 불편한 교통체계 때문에 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교수나 교직원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또 이런 교통체계는 우리대학에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도 불편을 끼쳐, 학교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 사람은 바로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다.

이윤호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중부경찰서에 이런 불편한 교통체계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계속 보류돼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5일, 이 교수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안전이 통과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이 교수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22년 철거역사 응축된 4시간 다큐 첫 상영

감독 조은 교수 “악순환되는 난쏘공의 모습 담고 싶었다”



▲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의 배경 상계동 강제 철거 현장의 모습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쳐부수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달려들어 집을 쳐부수었다. 어머니는 돌아앉아 무너지는 소리만 들었다. 북쪽 벽을 치자 지붕이 내려앉았다. 지붕이 내려앉을 때 먼지가 올랐다’

강제 철거(撤去), 그리고 강제 철거를 당하는 이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여성 사회학자가 있다. 1986부터 그녀는 ‘제 2의 광주사태’라고 비유될 만큼 폭력적, 비인간적인 양상의 강제 철거 현장에서부터 2008년 재개발이 이뤄진 현재까지 약 22년의 시간을 ‘사당동 더하기 22’라는 80분 영상(映像)에 담아냈다.

최근 그녀는 80분 영상 내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4시간 영상으로 새로 편집해 철거민 가족의 모습을 더욱더 진솔하게 담아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다큐 ‘사당동 더하기 22’의 감독인 우리대학 조은 교수(사회학과)이다.

지난 19일 4시간 버전으로 새롭게 편집된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 돌고 돌고 또 돌고(이하 사당동더하기 22 디렉터스 컷)’는 상암동 시네마테크 KOFA에서 첫 상영됐다. 첫 상영 후 그녀는 4시간 버전으로 탄생한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에 관해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4시간 영상으로 새롭게 편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조은 교수는 “국회에서 상영된 사당동 더하기 22를 본 한 기자 분이 22년이란 기록의 진정성을 80분에 담아내기에는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조언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은 교수는 학생들에게 86년 사당동 철거에 대해 막연히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 당시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사실적으로 와 닿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영상화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당동 더하기 22’는 1986년부터 2008년까지 조은 교수가 사당동 철거재개발현장연

구로 처음 만난 정금선 할머니 가족의 모습을 22년간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금선 할머니는 철거민의 역사를 고스란히 경험한 인물이다. 고향 부산에서도 철거촌에 살았으며, 상경해서도 용산, 상계동, 사당동 등 정착했던 곳마다 철거를 당했다. 정금선 할머니는 철거를 당한 주민들 중 유일하게 상계동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입주 후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이 다큐는 70이 넘는 나이에도 공공근로를 하는 정금선 할머니, 일일노동자인 아들, 20대인 손녀와 손자들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어떻게 세습되는지 시사한다.

4시간으로 새롭게 편집된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은 ‘사당동 더하기 22’에 비해 강제 철거와 관련된 사진과 녹취, 인터뷰 영상이 더 첨가되어 22년의 기록을 여유롭게 풀어냈다.

더불어 기록성, 연구자들을 염두하고 편집된 사당동 더하기22 디렉터스 컷은 엔딩 부분에 있어서도 80분 ‘사당동 더하기 22’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조은 교수는 ‘사당동 더하기 22’와 ‘사당동 더하기 디렉터스 컷’을 둘 다 보기를 관객들에게 권했다. 서사 방식, 구성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눈여겨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학자로서의 문제의식, 호기심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고민이 담긴 4시간의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은 사회 속 은폐(隱蔽)된 철거민들의 삶을 파스한 시선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그들의 삶에 위트가 되고 싶었다는 말로 관객과의 대화를 끝냈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인터뷰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 감독 조은교수(사회학)

“동국구성원의 도움이 다큐 제작 큰 원동력”

사회학자로서의 문제의식 담긴 다큐 사당동 더하기 22

4시간 다큐멘터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22년 동안 철거민 가족의 생애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를 영화화한 조은교수(사회학)를 영화가 끝난 뒤 만나볼 수 있었다.

‘사당동 더하기 22’는 영화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강제 철거와 철거민들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 기록된 것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영화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조은 교수는 “22년전 당시 유니세프는 한국 철거주민들의 실태에 대한 주제로 1년간 질적 연구를 할 연구자를 찾았다. 운이 좋게도 내가 이 연구를 맡게 되었지”라고 말했다.

이어 “22년 동안 연구하며 모은 사진, 영상들을 그냥 두기에는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제작요청을 했고, 사당동 더하기 22가 탄생할 수 있었어”라고 밝혔다.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은 기존 ‘사당동 더하기 22’ 80분 영상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첨가해 4시간짜리로 새롭게 편집된 작품으로 이날(19일) 첫 상영되었다.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로서의 영화 제작은 상당히 힘든 작업임이 분명하다. 22년간의 다큐제작중 어려움은 없었냐고 묻자 “비록 전문가의 영화처럼 시각적 효과는 없지만 22년의 세월을 4시간에 응축한다는 것은 수많은 고민이 뒤따른 작업이었다”라며 “영화 제작방법에 있어 배워나가는 자세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또한 “촬영은 영상에 관심있는 사회학



과 학생들이 도맡았고 영상촬영을 시작한 비디오 역시 우리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님에게 빌려서 시작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동국 구성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사당동 더하기 디렉터스 컷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에서 10월 20일 ‘사당동 더하기 22’를 상영할 예정이다. 바람이 불어 오기 시작한 가을, 철거민의 고달픈 삶이라는 현 사회문제에 대해 가깝게 접근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파스한 시선을 보내는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을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매체 비평 - ① 2PM 재벌사태

‘대한민국 학교 X까라 그래!’와 ‘korea is gay’의 사이



조형래
문화평론가·동국대강사

‘말죽거리 잔혹사’(2004)의 인상적인 대단원에서 현수(권상우)는 분노와 눈물이 뒤범벅된 목소리로 절규한다. “대한민국 학교 X까라 그래!”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이 극언(極言)이 어떤 사연을 함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고 해도 좋을 어떤 트라우마에 관해 정곡을 찌르고 있는 이 정교하게 연출된 대사에 대해서, 왜 전혀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 또한 지금의 “우리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한 역사적·문화적 경험에 관한 중대한 쟁점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일대다(一對多)의 격투에서 만신창이의 승리를 거두는 지독히 남성적인 파도스 및 이에 근거한 현수 자신의 전투적인 성장의 모범이 이소룡 즉 브루스 리라는 중국계 미국인에게 두어져 있다는 것은 (그가 진 추하와 아버를 향수했던 경험과 함께) 실

은 그 자신의 내면이 70년대 한국에 거주하는 코스모폴리탄 내지는 문화적 혼종성에 의해 정초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가? 그가 대한민국의 학교와 사회를 비속한 언어로 모욕한 것에 대해 네티즌+언론은 왜 공습을 감행하지 않았던 것인가? 오히려 개봉 이후 지금까지 널리 회자되고 또한 무수하게 패러디하고 있을 만큼 공감을 얻거나 또한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분명 기이한 현상이라 하

의와 비한국인으로 규정되는 타자에 대한 대중의 적대 등등의 가시적인 맥락의 차이 때문만은 아닐 터이다.

여기에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한쪽은 지속적으로 향유되었지만, 다른 한쪽은 거센 비난과 분노를 불러왔다는 식의 차이에 지나치게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 일반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상에 관한 애증의 양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중

폭력적 인터넷문화와 잘못된 애국주의가 결합된 것이 2PM 재벌 사태

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이것은 최근 2PM의 멤버 재벌이 과거 친구의 마이스페이스에 남겼던 글을 두고 네티즌과 언론이 협력하여 일단 폭력을 가한 사태를 빚대어 냉소적으로 말해 본 것이다.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으로 생활하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이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면서 경솔하게 배설한, 속어로 가득한 몇 문장, 그 중에서도 특히 “korea is gay...i hate koreans.”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 학교 X까라 그래!”와 크게 다를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말”에 대한 반응이 이처럼 극명하게 대립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지적되듯이 단지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허구 대 재벌과 2PM을 둘러싼 현실 또는 인종과 국적이 있어서 순수한 한국인 주인공에 대한 일반적인 호

의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전혀 상반된 관점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암흑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할 만한 가치를 지닌 조국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but eveyone thinks i'm like illest rapper wen i suck nuts at rappin...so dass pretty dope”이라는 말에 어쩌서 우리가 “열폭”하게 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학교 X까라 그래!”와 “korea is gay”는 그것을 조망하게 하는 서로 다른 관점이자 계기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관점 간 필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간극 내지는 사이를 횡단하는 시차적 이동(parallax shift)이 아닐까?

손숙과 고(故) 이해랑의 20년 인연(因緣)

이해랑 서거(逝去) 20주기 추모 공연, 오는 11일까지 상연(上演)



▲ 밤으로의 긴 여로
A석: 20,000원, S석: 35,000원

리얼리즘 연극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연극 ‘밤으로의 긴 여로’가 고(故) 이해랑 서거 20주기를 맞아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명동예술극장 무대에서 상연된다.

‘밤으로의 긴 여로’는 미국의 극작가 유진 오닐의 자전적 회고록으로 유명한 작품이며 유진 오닐에게 풀리처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하다. 1962년 고(故) 이해랑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출해 드라마센터에서 공연했다. 그 무대는 당시 젊은이들을 사로잡으며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해 연극계 최대의 화제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여고생이던 손숙도 이 연극을 통해 연극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심각

한 내적 갈등을 겪는 어머니 메어리는 손숙이 연기하고, 탤런트 김석훈이 폐결핵을 앓으면서도 예술가의 삶을 꿈꾸는 작가 유진 오닐의 분신과도 같은 둘째 아들 에드먼드 역을 맡아 2년 만에 연극 무대에 오른다.

또한 지난 시절 가난으로 돈에 집착하게 된 아버지 타이런 역은 김명수가 연기하고, 끊임없는 소외감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된 큰아들 제이미는 연극배우 최광일이 맡았다.

‘타이런 가족의 애증을 다룬 연극 ‘밤으로의 긴 여로’는 총 4막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르핀 중독으로 입원했던 어머니 메어리가 퇴원한 후 2개월이 지난 8월 어느 날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시간적 순으로 극이 진행된다. 타이런 가족은 증오와 사랑이 뒤범벅된 채 날카로운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집착을 되풀이한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체념과 절망으로 바뀐 부모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쌓여가는 아들들, 그리고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며 꿈 많은 여학생 시절을 그리워하는 어머니. 극은 이 같은 타이런 가 5명에 의해 진행되며, 마침내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 사랑을 느끼면서 극은 마무리 된다.

한편, 이번 연극은 기존의 국내 공연이 주로 텍스트로 삼은 초판이 아닌 2판을 바탕으로 새로운 번역과 대본에 의해 제작돼 연극 팬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 장충단 공원에서 하이테크 문화와 하이터치 문화를 주제로 강연하는 독어독문과 봉일원 교수(좌), 강원도 영월 법흥사 템플스테이 전경(우)

문과대 2009 인문주간 행사 ‘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성료(盛了)

강단 인문학, 저자거리 시민들에게 내려오다

템플스테이 통한 인문학과 불교의 만남, 공원 속에서 시민들과 만나 삶과 인간에 대한 교감 나누

우리대학이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NRF)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인문주간 행사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우리대학 강의실 및 장충단(獎忠壇) 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문과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명상체험-중요적 삶과 노마드적 삶, ‘혼불’ 함께 읽기’, ‘장충단 심야 인문 강좌-아폴론과 디오니소스’ 및 ‘인문학적 상상력, 소통과 창조’, ‘남산에서 시인을 만나다’ 등 네 분야로 이뤄졌다.

인문적 상상력이 여는 삶의 아름다움

‘인문학적 상상력, 아름다운 삶을 열다-자기 변화로서의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는 효용만능이라는 문맥에 포획되어 있는 우리 현재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省察)하고,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의 조건이 ‘자기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는 함께 하는 것, 즉 다른 것을 만나서 자신이 변이(變移)하는 것임을 확인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장충단 심야 인문강좌-아폴론과 디오니소스’(강좌), ‘인문학적 상상력, 소통과 창조’(학술강연), ‘명상체험-중요적 삶과 노마드적 삶, ‘혼불’ 함께 읽기’(체험), ‘남산에서 시인을 만나다, 시적 상상력과 현대 삶’(답사 및 토론회)라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충추는 세 개의 큰 마당을 마련하여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비인문학 전공자 및

비인문계열 직업 종사자 모두가 마음껏 소통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내고자 했으며, 또한 이런 ‘공감의 축제장’을 통해 인문학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인문학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기획됐다.

명상체험, 중용적 삶 중요성 일깨워

지난 19일에 있었던 ‘명상체험-중용적 삶과 노마드적 삶, ‘혼불’ 함께 읽기’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법흥사에서의 템플스테이를 겸해 진행됐다.

이날 명상체험에는 우리대학 철학과 유현우 교수와 정영호 시인이 참가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명상, 발우공양 및 정경소설 ‘혼불’에서 발췌한 글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21, 23, 25일에 있었던 ‘장충단 심야 인문 강좌-아폴론과 디오니소스’는 유현우, 오국근 명예교수, 봉일원 독어독문과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장충단 공원에서 진행된 시민인문강좌는 우리 인간과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아폴론적인 빛과 디오니소스적인 그림자는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극한 대립이 아니라 모순과 양극이 조화롭게 서로 공존(共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이성과 감성의 이중주’, ‘글로벌 무대

에서의 동질화와 이질화’ 및 ‘하이테크 문화와 하이터치 문화’란 세 파트로 분리해 강의를 진행했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동질화와 이질화’ 파트의 강연을 맡은 오국근 교수는 “미국이란 문명이 인류사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면서 “미국을 연구하는 것이 곧 글로벌 시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며 미국 문명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 교수는 “현재의 글로벌 시대는 사실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글로벌 시대의 패러다임은 그대로 우주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이어진다. 이 우주의 패러다임을 잡았기 때문에 무수히 반복되는 불교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충단 공원에서 시민들과 인문강좌도

‘하이테크문화와 하이터치문화’ 파트를 맡았던 봉일원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는 하이테크 및 하이터치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감성을 자극하는 상술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소비자주권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 24일에는 ‘인문학적 상상력, 소통과 창조’란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이 있었다. 이 강좌는 ‘공학자가 말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및 ‘한국인문전통과 다문화 삶’의 두 파트로 각각 진행됐으며 윤

재웅 국교과 교수, 전영일 건축공학부 교수, 최인숙 철학과 교수 및 박연규 경계대 교양학부 교수가 참가했다.

‘공학자가 말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강연은 비인문학도들 대상으로 인문학적 상상력이 공학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문전통과 다문화시대에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토론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인문학의 위기’는 여러 차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학내에서의 기피현상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인문학에 대한 비인문학도들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동시대 대학내에서의 ‘인문학 운동’을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22일 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공학자가 말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강연에서 윤재웅 교수는 “인문학(人文學)의 위기라는 말이 떠돌고 있지만 인문 정신의 가치는 여전히 문명과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인문적 교양의 질적 저하”라고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과학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지만, 감성이 넘치는 시부터 단순한 그림까지를 이해하는 영역은 인문학”이라며 “표현하기 어려운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고부(孤富)하는 분야가 인문학이다”라며 인문학의 정의에 대해 말했다.

이어 같은 날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전영일 교수는 “지금 보이는 인문학의 위기는 취업 목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라며 “인문학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학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인문학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확대·재생산하고 사회는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인문전통과 다문화 삶’을 테마로 진행된 강좌에는 박연규 교수, 최인숙 교수가 참여했으며, 각각 ‘한국전통인문학의 성격’ 및 ‘다문화시대의 삶에 위한 인문학적 상상력’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딸깍발이 혼 서린 남산에서 시 낭송

이번 인문주간 마지막인 ‘남산에서 시인을 만나다. 시적 상상력과 현대 삶’은 인문학적 상상력, 즉 ‘자기 변화’를 위해 마련한 ‘여행’이다.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 가슴에서 발에 이르는 여행의 체험으로 마련한 이 긴 여행을 견디게 해주는 힘은 우리의 ‘양심’과 ‘자부심’임을 확인해보고자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삶의 현장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창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이다.

한편, 이번 답사 및 토론회에는 선상규 박사과 김갑기 국문과 교수가 참석할 가운데 진행됐다.

총 8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지역 시민들과 어우러져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경제불황으로 인해 삶의 근본적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 4면에서 계속

하정(경주/교수, 4만원) 하이테크과(학)이정호(기업/재단, 3000만원) 하창호(동문, 1만원) 한경윤(불교/기타, 2만원) 한국방송광고공사(기업/재단, 200만원) 한국장학재단(일반/기타, 1억2369만8000원) 한기태(일반/기타, 1만원) 한만수(서울/교수, 4만원) 한영란(경주/교수, 4만원) 한원영(불교/기타, 2만원) 한인만(동문, 2만원) 한중수(불교/기타, 2만원) 한주식(일반/기타, 4만원) 한형민(동문, 4만원) 함한진(동문, 9만원) 해성문화재단(기업/재단, 50만원) 허남철(서울/교수, 20만원) 허진(불교/기타, 6만원) 허진석(동문, 15만원) 현담스님(스님, 4만원) 현우스님(스님, 500만원) 형제회(동문, 10만원) 혜공스님(불교신도, 2만원) 홍동미(불교/기타, 5만원) 홍봉철(일반/기타, 4만원) 홍성장학재단(기업/재단, 540만원) 홍선기(동문, 10만원) 홍성조(동문, 2만원) 홍승현(서울/교수, 10만원) 홍인선(불교신도, 4만원) 황병진(서울/직원, 10만원) 황우자(경주/기타, 6만원) 황영준(동문, 100만원) 황우자(경주/교수, 40만원) 황준연(서울/교수, 4만원) 황진용(동문, 2만원) 황준연(서울/교수, 10만원) 황우스님(스님, 3만원) 회안스님(스님, 400만원) PARTNERS(기업/재단, 348만2000원) ROTC15기후회(동문, 100만원)

특정목적기금

(주)대신산업(기업/재단, 3만원) (주)대우종합해사(기업/재단, 2만원) (주)로즈버드(기업/재단, 20만원) (주)아인(기업/재단, 50만원) 경주경각원(사찰, 85만3500원) 공제회(동문, 6만원) 광문수(동문, 2만원) 교세실(일반/기타, 10만원) 구자선(동문, 3원) 권동호(동문, 3만원) 권보래(서울/교수, 10만원) 권성훈(동문, 2만원) 권영섭(경주/직원, 4만원) 권우윤(경주/교수, 2만원) 권유미(동문, 5000원) 권경숙(대학원/불교, 30만원) 권은우(동문, 3만원) 권혁배(경주/직원, 4만원) 김종구(동문, 3만원) 김경민(동문, 10만원) 김계원(서울/직원, 4만원) 김귀향(동문, 2만원) 김규원(경주/직원, 2만원) 김근목(경주/직원, 10만원) 김덕자(동문, 8만원) 김덕표(학부생, 3만원) 김도윤(일반/기타, 5만

원) 김동석(학부생, 3만원) 김동협(경주/교수, 10만원) 김문식(일반/기타, 40만원) 김병호(동문, 2만원) 김복순(경주/교수, 20만원) 김상우(서울/직원, 6만원) 김상필(경주병원/직원, 4만원) 김성규(경주/직원, 4만원) 김성원(동문, 5000원) 김수동(경주/교수, 20만원) 김영(동문, 9만원) 김유리(불교신도, 10만원) 김재복(경주/교수, 40만원) 김재윤(불교신도, 10만원) 김재홍(일반/기타, 2만원) 김경연(스님, 2만원) 김정윤(동문, 3만원) 김진철(경주/직원, 6만원) 김재환(서울/직원, 20만원) 김철용(경주/직원, 2만원) 김현진(동문, 12만원) 김형국(동문, 6만원) 김혜정(동문, 9만원) 김혜중(서울/교수, 20만원) 김희수(동문, 4만원) 나외영(동문, 2만원) 남원식(경주/직원, 2만원) 노동영(경주/직원, 4만원) 동국대구내사진관(기업/재단, 10만원) 불연봉(기업/재단, 10만원) 류정원(동문, 3만원) 박갑식(대학원/행정, 2만원) 박경순(동문, 1만원) 박계호(학부생, 2만원) 박광원(동문, 3만원) 박관오(동문, 2만원) 박규원(동문, 1만원) 박기린(경주/직원, 2만원) 박미경(동문, 2만원) 박봉환(동문, 3만원) 박상범(경주/교수, 6만원) 박상익(일반/불교신도, 10만원) 박윤희(서울/교수, 10만원) 박정국(서울/교수, 20만원) 박종희(경주/직원, 2만원) 박정희(서울/교수, 10만원) 박철수(동문, 3만원) 박치만(경주/직원, 10만원) 박혜구(경주/직원, 10만원) 박원환(동문, 2만원) 박윤우(서울/직원, 20만원) 배건우(동문, 2만원) 배병국(경주/직원, 2만원) 배중남(동문, 10만원) 백광원(경주/교수, 10만원) 백상(기업/재단, 30만원) 배용준(서울/교수, 10만원) 보글락F.S(주)(기업/재단, 15만원) 북교대학원CEO과정7기(동문, 500만원) 산정(기업/재단, 10만원) 삼일제약(기업/재단, 1500만원) 서병희(불교신도, 6만원) 성재용(경주/직원, 6만원) 손동진(경주/교수, 10만원) 손윤준(동문, 2만원) 손재영(서울/직원, 10만원) 송이근(경주/직원, 10만원) 안수현(학부생, 2만원) 알로킴(기업/재단, 10만원) 양정진(불교신도, 2만원) 오강희(경주/직원, 10만원) 오재복(기업/재단, 20만원) 오소민(불교신도, 15만원) 오윤원(동문, 20만원) 오준철(불교신도, 15만원) 오원옥(경주/교수, 10만원) 옥동진(기업/재단, 10만원) 유용범(동문, 10만원) 윤병환(동

문, 1만원) 윤상희(불교신도, 10만원) 윤진아(경주/직원, 2만원) 윤진호(경주/교수, 10만원) 이경식(서울/직원, 20만원) 이경자(불교신도, 2만원) 이관용(동문, 1만원) 이규욱(서울/직원, 4만원) 이금정(불교신도, 10만원) 이기범(경주/직원, 4만원) 이남순(일반/기타, 3만원) 이만(경주/교수, 2만원) 이상경(동문, 2만원) 이상득(경주/직원, 8만원) 이상윤(경주/직원, 2만원) 이상조(일반/기타, 4만원) 이수아(일반/기타, 3만원) 이승진(동문, 5만원) 이시영(경주/교수, 6만원) 이시형(학부생, 6만원) 이연희(동문, 2만원) 이명관(서울/직원, 5만원) 이영하(동문, 15만원) 이용수(경주/직원, 4만원) 이용준(동문, 9만원) 이원재(경주/직원, 6만원) 이원하(일반/기타, 6만원) 이종두(동문, 2만원) 이준근(동문, 50만원) 이지연(동문, 2만원) 이진형(경주/직원, 10만원) 이현정(경주/직원, 4만원) 이현태(동문, 2만원) 최규철(서울/교수, 50만원) 임명수(경주/직원, 4만원) 임종민(경주/직원, 1만원) 임연오(경주/직원, 6만원) 자신과(일반/기타, 2만원) 장이현(경주/교수, 10만원) 장해룡(경주/교수, 4만원) 장애리(학부생, 1만원) 정영도(경주병원/직원, 3만원) 전우안(학부생, 8만원) 정각원(사찰, 1407만5149만원) 정경민(동문, 4만원) 정경섭(서울/직원, 20만원) 정동철(일반/기타, 2만원) 정부자(동문, 1000만원) 정승재(동문, 20만원) 정안스님(스님, 4만원) 정영희(대학원/불교, 20만원) 정은재(동문, 30만원) 정인아(동문, 500만원) 정재우(동문, 30만원) 경준기(경주/교수, 20만원) 조복원(동문, 20만원) 조성중(동문, 4만원) 조영문(동문, 1만원) 조창환(경주/교수, 2만원) 조희영(서울/교수, 4만원) 진동원(동문, 2만원) 진현성(불교신도, 10만원) 차미영(동문, 1만원) 최경원(일반/기타, 10만원) 최교위(안정정책과정/동문, 2000만원) 최덕수(동문, 4만원) 최병환(동문, 10만원) 최정훈(경주/직원, 10만원) 최종택(동문, 9만원) 최환희(서울/교수, 5만원) 최해수(동문, 4만원) 최호진(서울/직원, 6만원) 최강식(기업/재단, 10만원) 행정대학원대학원/행정, 2200만원) 허혜진(동문, 20만원) 현우스님(스님, 20만원) 홍보자(기업/재단, 20만원) 황도겸(기업/재단, 20만원) 효진스님(대학원/불교문화, 20만원)

THE KITCHEN
New York Style Restaurant

MENU : pasta, pizza, risotto & rice sandwich
Coffee & Beverage

OPEN : 09:00 CLOSE : 21:00

LOCATION : 이매당 예술극장 옆 학술 문화관 지하 B1
예약문의 : 02)2271-2436/샌드위치 류 모든 메뉴 배달가능

Feel the comfort of your home and the taste of New York at THE KITCHEN with reasonable price.

1'st EVENT!

동아리모임, 세미나 등 학내 외 행사를 위한 예약운영 및 매일 매일 Daily 이벤트 등 동국대에 명소가 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모든 구매 고객께 10월 한달간 응모권을 지급하여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커피만료쿠폰(100%) 5% 커피 무료권
커피 무료권

1등 노트북(1명)
2등 미니디가(3명)
3등 MP3(5명)

상기 이미지는 본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CEO 기획 특강

영상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업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기획 특강 행사를 진행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행사 취지
영상미디어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1세기 영상미디어 산업발전에 부합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참여 대상
본교 영상미디어 관련학과 학생·교수 및 문화콘텐츠 산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 학생

3. 특강 일정 및 강사 소개

- 1차
 - 주최: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미래 진단
 - 강사: 서병문 이사장 (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현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사장)
 - 일시: 2009년 9월28(월) 오후 6시
 - 장소: 경영관 101호
- 2차
 - 주최: 임팩트 감독의 영화이야기
 - 강사: 임팩트 감독(영화감독)
 - 일시: 2009년 10월12(월) 오후 6시
 - 장소: 문화관 초하당 세미나실
- 3차
 - 주최: 방송을 중심으로 살펴본 영상콘텐츠에 관한 이해
 - 강사: 이남기 대표(현 SBS 대표이사)
 - 일시: 2009년 10월26(월) 오후 6시
 - 장소: 문화관 초하당 세미나실

주최: 영상대학원 후원: 영상미디어대학

이주의 새책

중국 전역의 지장신앙 총망라한 '지장' 백과사전



지장 (전 2권)
지은이 장총
옮긴이 김진무
펴낸곳 동국대학교 출판부
I 352쪽, II 400쪽 / 49,000원

지장보살에 관한 불교 경전과 각종 문헌을 계통적으로 정리하고, 석굴 조각과 소조(塑造), 돈황 막고굴 등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회화, 그림과 경문이 함께 있는 시왕경도(十王經圖) 등을 총망라해서 지장신앙에 대해 연구한 중국의 '지장신앙연구' 번역서가 출간됐다. 번역서지만, 이 책 '지장 I·II'는 단순 번역서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이번에 동국대학교출판부에서 졸저를 번역 출판하는 것을 계기로 필자는 이를 수정 보완했지만, 시간 등을 이유로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미 중국 원본 가운데 몇몇 잘못된 점은 바로잡았다. 또한 경전 중 다라니 부분을 어느 정도 수정하였고, 필자가 조사한 몇몇 석굴사(石窟寺)의 중요한 새로운 자료도 보충하였다.

또한 특별히 강조할 것은, 동국대학교출판부의 요청에 의해 본 한국어판의 지장도상(圖象) 부분에 많은 도판(圖版)을 추가하여 출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원본과 비교하면 참으로 새로운 저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지장보살 관련 도

상이 담겨져 있는 본서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은이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와 같이 밝힌 것처럼 '지장 I·II'는 원서 '지장신앙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지장신앙 연구의 한 전범(典範)이라 할 만하다. 지장보살 신앙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승려 원광법사가 중국에서 귀국한 후 지장 삼부경(三

부경)의 문수보살의 오대산, 관음보살의 보타산, 보현보살의 아미산과 더불어 중국 불교 4대보살의 명산도량 중 하나가 됐다.

원서 '지장신앙연구'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출판기금으로 출판된 책으로, 지은이가 중국 대륙 전역의 지장신앙과 관련된 사찰과 유적을 조사하고 방대한 작품과 문헌을 바탕으로 집필한, 중국 지장신앙을 대표하는 저작이다.

지은이가 지장보살을 찾아 떠난 구도의 여정은 그의 학문적 열정의 소산이기도 하다. 특히 이 책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장신앙과 관련된 다양하고도 귀중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 책은 지장신앙의 전래에서부터 발전·민간 습합에 이르는 전 시기의 소의경전과 주석서, 각종 보권(寶卷)을 집대성하고 있으며, 지장시왕 도상의 형식과 양식뿐만 아니라 도상의 주제와 내용까지도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

장신앙의 백과사전이라 하겠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전체 지장신앙 속에서 신라 김지장 신앙의 비중을 깊이 있게 통찰하여 현대 중국 지장신앙의 앞날을 의미있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중국의 지장신앙을 집대성한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지장신앙 연구자와 지장보살을 신앙하는 이들의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지장은 'I. 경전과 문헌자료 연구', 'II. 조각과 회화' 2권으로 구성돼 있다. I 권에서는 지장신앙의 근거가 되는 경전 및 주석서, 돈황에서 출토된 각종 전적의 사본, 그리고 민간에서 출현한 보권(寶卷) 등을 통해 지장신앙의 면모를 밝히고 있다. 또한 민간신앙에 스며든 지장신앙의 모습과 다양한 지장신앙의 변용을 논하고, 한국과 일본의 지장신앙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II 권은 160여 장의 컬러 사진을 활용해 지장보살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논구하고 있어 중국 지장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경전, 석굴조각, 돈황 막고굴 등의 회화 총망라해 계통적으로 정리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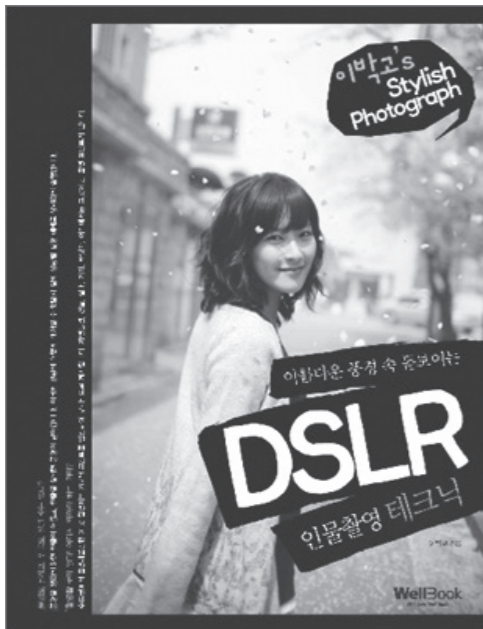
지장보살에서 신라왕자 김교각 보살에 이르는 지장신앙 대장정의 총체

部經)의 하나인 '점찰선악업보경'을 바탕으로 한 신도 조직인 '점찰보(占察寶)'를 설치하면서부터 지장신앙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신라 왕자 김교각 스님이 중국의 지장신앙에서 차차하는 비중이다.

김교각 스님은 신라 성덕왕의 첫째 아들로 전해지며, 당나라로 출가하여 안휘성 구화산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평가받았다. 이로 인해 구화산 지장도

고유석 군, 네번째 디카 촬영법 책 출간

DSLR 이용, 다양한 인물촬영의 기술 담아



지은이 고유석 외
펴낸곳 도서출판 웰북
495쪽 / 25,000원



지만 촬영하다보면 다 똑같은 느낌으로 대부분 촬영하게 되어 촬영하는 사람이나 모델 모두 얼마 못가 지루해하고 촬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촬영할 때 인물을 살리면 배경(背景)이 안보이고, 배경을 살리다보면 인물이 안보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떠한 풍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인물을 살려내는 다양한 테크닉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생활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

만들어진 환경 속에 서터만 누르면 뺨한 사진이 되는 촬영 테크닉이 아니라 실제 촬영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감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전 촬영 테크닉을 설명한다. 인물과 풍경을 촬영하면서 이전 고민할 필요가 없다. 풍경을 살리면서 인물도 멋지게 촬영할 수 있는 구도 설정이나 노출 설정 방법을 구체적인 예제(像題)를 통해 설명한다.

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사진이 나오는 것은 결국 감성(感性)의 문제다. 이밖고 특유의 감성적인 사진촬영 테크닉을 설명하여 매마른 증명사진이 아닌 감성적인 인물사진을 찍을 수 있다.

고유석 군의 사진 세계에는 열정과 순수함이 있다. 기라성 같은 전문 사진가들의 현란한 사진은 아니지만 한장 한장의 사진 속에 우리의 삶과 감성이 있다. 그의 사진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이야기들이 주제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가깝게 느껴지고, '나도 저 정도는 촬영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밖고의 네 번째 책 DSLR 인물촬영 테크닉은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셔터를 누르게 될 인물사진 이야기다. 어디에 있어도 사랑받는 사람을 돋보이게 촬영(撮影)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책 속에 담아 하나씩 실전 예제를 통해 풀어간다.

특히 이번 책에는 우리대학을 배경으로 좋은 인물사진을 찍는 법을 실어 모교에 대한 애교심을 담은 것도 특징이다. 명진관, 도서관, 상록원, 봄철의 벚꽃나무 등 아름다운 동국의 곳곳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예제는 가을이 되면 카메라를 들고 나가고 싶은 생각마저 들게 한다. 수도권에서 촬영해볼 만한 31곳 촬영지의 217개 포인트도 엄선(嚴選)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쿠폰을 오려 동대신문사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고유석 군의 사진이 담긴 25,000원 상당의 책을 증정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김춘식 교수의 독서산책

삶의 지혜 던져주는 '열국지'

'삼국지'나 '수호지'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반면 '열국지'라는 소설은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고사성어, 중국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으로 재미와 가치를 함께 지닌 책이다. 이 책을 자세히 소개하면 글이 너무 길어 질 것 같아 간단히 이 책 속의 고사 하나를 요약해서 말하고자 한다. 관포지교로 유명한 관중이 재상을 지내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이때, 관중은 제나라 환공에게 "포숙아는 정직하고 청렴결백하여 나라를 잘 다스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그 청렴결백함과 정직이 때로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포숙아는 너무 곧아서 모든 간신의 무리를 내치고 말 것입니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주공께서는 포숙아를 믿으시고 역아, 수초, 개방과 같은 무리를 멀리 하신다면 포숙아를 재상으로 앉히시되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습봉을 재상으로 앉히소서. 그러나 습봉은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 아마 주공을 오래 모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되면 포숙아를 재상에 앉히시되 포숙아와



동주 열국지 (전 12권)
지은이 풍몽룡 지음 / 김구용 옮김
펴낸곳 도서출판 숲
가격 93,600원

역아, 개방, 수초의 무리는 상국이오니, 나라를 위해서는 그들을 멀리하시야 합니다"하고 당부한다. 관중의 말대로 습봉이 죽자, 환공은 역아, 수초를 궁에서 쫓아낸 뒤 포숙아를 재상에 앉혔고 나라의 기반은 더욱 튼튼해진다. 하지만 이미 나이가 든 환공의 삶은 적적하고 짝이 없었다. 무력하고 권태로움에 날로 여위어 가던 환공이 마침내는 역아, 수초의 무리를 다시 불러들였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포숙아는 '환공'에게 수차례에 걸쳐 그 잘못을 간하다가 결국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만다. 그 후, 환공도 병이 들어 운신이 불편해지자 첫째 아들 태자 무휴와 역아, 수초는 서로 짜고 침실 주변에 세 길 높이로 담을 쌓아 물과 음식을 차단한 뒤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여 환공이 죽기만을 기다렸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환공은 자신의 잘못을 탄식하면서 방에 갇힌 채,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둔다. 이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관포지교에서 끊어없이 전파와 변명을 일삼는 관중과 우직하고 신의 있는 포숙아의 성격과 그들의 운명이다. 재상의 자리에 올라 춘추시대 첫 패업을 달성하는 견인차 노릇을 한 관중의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시세와 상황에 따라 처신해야 합니다"라는 융통성이 있는 듯하면서도 원칙이 없는 기회주의와 병을 얻어 생을 마친 포숙아의 인생이 의미심장한 대비를 이룬다. 두 번째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환공의 비참한 최후이다. 세 번째는 역아, 수초, 개방의 성격이다. 역아는 주군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고 하여 환공의 사랑을 받게 된 자이고, 수초는 환공을 모시고자 스스로 고자가 되어 환공의 직을 얻어 사랑을 받는 자였다. 일찌기 관중은 환공에게 역아와 수초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위나라 태자의 자리를 버리고 환공의 신하로 들어온 개방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며 그런 자를 가까이 하면 나라에 변란이 생긴다고 말한다. 춘추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열국지' 안에는 현재에도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만한 이야기가 많다.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이 책에 관해 제한된 지면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 책 속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추천의 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김춘식 문과대 국문과 교수)



책도 받고 사인도 받고

오는 10월 9일까지 동대신문사로 이 쿠폰을 오려오시면 추첨을 통해 총 4명에게 신간 <이박고's DSLR - 인물촬영 테크닉>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문의전화 02-2260-3491, 2)



윤명철
교양교육원 교수

달하나 천강에 어찌하라 우리학생들을

학인(學人)에게 가을이란 더욱 남다르다. 한 여름 내 흘린 땀 말끔하게 씻고, 맑음으로 정좌한 채 무심으로 올려다보며 하늘과 땅 새에 열린 역사의 열매들을 관조하는 시간이다. 밝음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난다고 말할 하지만, 한가을날 밤에 뜬 보름달은 청빛 하늘에서 더욱 또렷하게 정좌하고 있다. 그 한가위 보름달 하나 千江으로 흐르면서 탁하고 막혔던 사바세계를 맑은 가을로 씻겨주고 있다.

월인천강(月印千江). 원래 하나란 많음과 다름이 아닌 것. 점으로 시작한 한 사건은 선으로 원형으로 허물벗기를 되풀이하면서 역사로 모여지고, 한 존재는 만물과 괴리물고 이어달리기에 여념이 없다. 여래(如來)는 연꽃 한 송이 여윈 손 끝에 들고 무한의 지혜를 설교하였고, 근기높은 수행자들은 한 점을 구하려 목숨을 내걸었다. 하지만 범인인 나는 산구(山口) 돌장승 앞을 머뭇거리다 발길 돌리고, 때로는 산언저리에 머물면서 고봉(高峰)의 그림자에 젖다가 착각임을 알고 절망으로 머리통을 두들겨댔다. 그리고 먼 훗날을 기억하며 한 점의 月印 대신 千江의 파편들을 찾자 세상을 훑었다. 역사를, 고구려를, 우리를 찾아 방향하였다. 법외로 흰해진 아름다운 이 터의 산과 강, 동굴들을 찾아 다니며 월인의 문신을 확인하였다. 그 긴 여로의 중간 중간을 흐르는 천강에서 경험과 지식의 파편들을 주워 모아 모닥불을 피우고, 지혜의 그림자들로 시린 등을 감싸왔다.

그리고 이 곳 동악(東岳), 철든 아래 수 십 년 동안 온갖 사연 지어가며 오르락 내리락했던 작은 동쪽 산인 동악 한 귀퉁이에서 주워온 달의 파편들을 손바닥과 가슴에 들고, 온갖 반점들로 얼룩진 파편에서 배어나오는 천강의 달빛들을 소심하게, 때로는 치기 어린 자랑도 해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스승인 내 눈에는 왜 그리도 안타까움이 쌓여 가는지. 연에 집착하면 법기(法器)라도 터진 막사발로 보이는 것처럼 채 탈각 못한 아상(我相) 때문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생이 학생에게 지닐 수밖에 없는 숙명 때문일까?

흐를 만큼 흐른 세월은 남을 가르친다는 집착을 털어 낼 만도 하지만, 불만과 아쉬움은 더 쌓여가는 듯 하고, 탄식 또한 실 새 없이 흘러나온다. 때로는 야속한 마음까지 들기도 하지만 그들 탓만 하지는 않는다. 월인과 천강의 상관관계를 이해조차 못한 내 탓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강의를 끝내며 아쉽게 헤어진 우리 학생들 한가위 보름달을 본 나는 또 달의 색다른 파편들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와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 틈에서 뿔어져 나올 또 다른 달빛파편을 고대하면서.



동명칼럼
이동재

미술 93졸, 작가

상실(喪失)의 시대(時代)를 넘어서

블루칩, 옐로우칩, 투자클럽, 경매 등의 단어들이 주식시장을 위시한 경제계에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듣는 이에 따라서는 생소하게 들리는 '미술시장'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소위 묻지마 투자가 성행(盛行)하리 만큼 주식투자 열기가 뜨겁던 2006년 무렵 부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루가 다르게 주가가 치솟고 시장에 자금(資金)이 넘쳐나자 주식과 부동산 등 전통적인 투자대상 이외의 새로운 대상을 찾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미술시장에 반영되어 전례 없는 호황을 수년간 누리게 되었다.

주목받는 작가의 전시장에는 작품이 팔렸음을 의미하는 '빨간딱지'가 작품 밑에 붙어 있었고, 미술 경매장에서는 작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매 회 경매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쏟아졌다.

블루칩 혹은 옐로우칩이라 불리며 주목받는 작가의 작품가격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수 배 이상씩 가격이 상승하는 만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황(狀況)이 이쯤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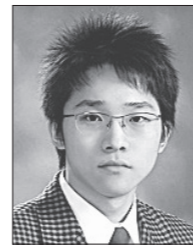
자 미술관은 시장의 논리가 주도해 가는 형국이 되어 '팔리는' 작품을 하는 작가를 양산하게 되었고, 담론(談論)을 형성하는 비평이나 시대상황을 담보한 작가들의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이는 결국 미술계 전체를 왜곡(歪曲)시키고 미술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했다. 시장의 호황(好況)으로 인해 수혜(受惠)를 받은 작가는 소수일 수밖에 없었고 그 이외의 작가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어찌 보면 운이 좋았다. 호황의 시작이던 2007년 초에 개인전을 열어 주목(注目)을 받았고, 소위 인기작가라 불리우며 여기저기서 작품을 주문하고 전시에 초대하는 러브콜을 받았다.

그러나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신선허랑들은 금융위기 이후 호황이 사그라지자마자 자취를 감췄고, 기존의 허랑들도 구조 조정의 압박에 시달리며 버터고 있는 현실이다. 한 때 연일 새로운 경매기록을 갱신하던 인기 작가들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호황의 수혜를 받았거나 그렇지 못했거나, 작가들은 지금 상실감을 지니게 되었다.

학문과 예술이 자본에 잠식된 시대상황에서 예술작품을 경제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예술을 통해 지켜내야 하는 가치는 창작(創作)의 자율성(自律性)을 통한 새로운 시대담론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이러한 예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제도적인 지원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 유행을 일으키며 '미술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성을 담보한 진정한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것이야말로 미술 본연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이다. 작가와 미술계의 각성(覺醒)과 노력,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예술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절실한 일일 것이다.



학생칼럼
임한솔

법학과 3학년

익명성(匿名性)의 폐해(弊害)

90년대 후반,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화장실 낙서문화가 크게 유행하였다. 개인적 공간인 화장실에서의 낙서는 '익명성'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본다. 성(性)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사회내의 비리나 비밀이 폭로되는 과거의 화장실 낙서문화는 현재 인터넷 익명 게시판의 성격과 비슷하다. 익명성으로 거론되지 못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동국대학교 커뮤니티인 디연의 익명게시판을 보면 비방(誹謗)과 욕설(辱詈)이 난무한다. 성적인 글은 물론이고, 학과의 분열을 조장하는 글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성인이며 성인인 대학생들이 가입하여 활동

한다는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낮부끄러운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동국인들의 몰지각함이나 운영자들의 무능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일부 익명성에 기대어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려는 회의로 인해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는 꼴이다.

다른 대학교의 커뮤니티에는 진지한 익명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또한 진지한 댓글이 달려있다. 이화여대 커뮤니티인 이화이언의 예를 들면,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고 다른 유저들은 진지하게 그에 대한 댓글을 단다. 어느 누구도 대중 지껄이고 가버리는 경우는 없다. 같은 대학교 커뮤니티 내의 아주 다른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는 교수에 대한 정보나, 학교 내의 부당한 사실, 대학생으로서의 진지한 고민, 예컨대 취업이나 이성문제 등을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공간을 위해서 동국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심코 내뱉은 한 줄의 댓글이 정보 교환의 장인 커뮤니티의 존폐(存廢)를 결정할 수 있다.

디연은 동국인의 인연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온라인상의 소통공간이지만 각자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 만삼천 동국인의 소통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해가는 입장에서 디연이 조금 더 진지하고 신사적인 방향으로 발전해가길 기대한다.

사·진·에·세·이



학내에서 열린 중구 소년 소녀 가장 돕기 행사. 학생들의 즐거운 자선활동.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독 / 자 / 투 / 고 동대신문사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자유로운 주제로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전화 | 2260-3491~2, 010-6560-7927 e-mail : yshero21@dongguk.edu

“덴노헤이카 반자미!”

“천황폐하 만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절을 하며 외친 말입니다. 내일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런 기억으로 각인된 경술국치 100주년의 해입니다.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 2009년 9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교도통신' 인터뷰 중에서

1895년 10월 8일, 일본 육군중장 출신 미우라 공사가 주도하여 조선의 명성황후를 참혹하게 모살(謀殺)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09년, 미국 땅 하얼빈에서 '우리나라의 국모를 죽인 죄'를 들어 조선청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2009년 현재,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슬펐던 장례식을 치른 기록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가 일본 왕실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덴노헤이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명성황후 모살을 사죄하고 참회하십시오!

궁내청에 있는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십시오!

우리는 일왕 아키히토의 한국 방문을 '아주 특별하게' 환영합니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조계종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
문화재제자리찾기

바탕그림: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에 수록된 발인반차도(發殯班次圖)

※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은 일제가 약탈 반출한 우리문화재 반환운동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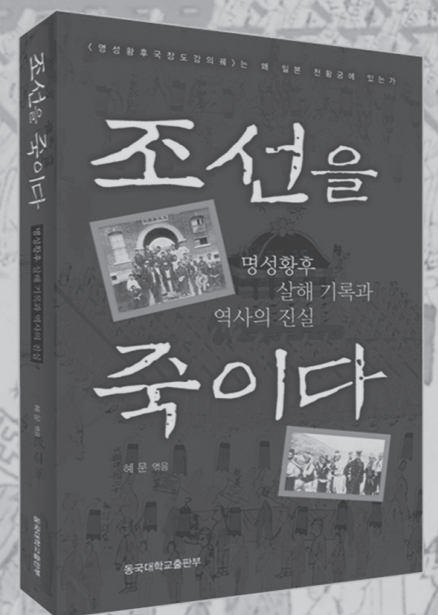
조선을 죽이다

명성황후 살해 기록과 역사의 진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모를 죽인 자'들의 고향과 무덤을 누비면서 그들이 남긴 유품과 기록을 찾아 이국의 곳곳을 만행(萬行)한 눈 푸른 남자(衞子)의 비장한 수행 기록

□ 명성황후 살해에 직접 가담한 당시 한성신보 편집장 고비아키와가 쓴 수기(인후조락사건) 원역 수록
□ 일본에서 '조선왕비 능욕설'을 불려일으켰던 <에이조 문서> 등 일본 국회 헌정자료실에서 입수한 <조선왕비사건 관계자료> 전문 수록

해문 역음/신국판 304쪽/값 12,000원/동국대학교출판부



역사는 아직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입학사정관제 준비되어 있는가?

2010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 227,000여명 중 10%정도에 해당하는 22,700여명을 입학사정관(入學査定官) 전형으로 선발한다. 정부지원예산 규모도 2007년 20억, 2008년 157억, 2009년 23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앞으로도 입학사정관 전형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입학 사정관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학의 준비와 고교 교육 여건은 과연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다.

제도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일 수 있다. 현실 여건의 문제 또한 함께 고려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에 대한 찬반(贊反)보다는 제도가 적용의 여건과 준비 정도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7월 교과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은 지난해 203명에서 77% 증가한 360명으로 늘었으며 선발인원도 4,500명에서 454% 증가했다.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 중요한 핵심 요소중의 하나가 전문성을 갖춘 사정관이 다. 정부의 의지로 인해 선발 학생수와 학교 수는 늘어나는데 전문성을 갖춘 사정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대학은 단기간 안

에 100여명이 넘는 입학사정관을 배치 하기 위해 단기 양성 입학사정관 프로그램을 지난 6월에 마련했다. 정부와 대학의 준비 정도를 쉽게 알아 차릴 수 있는 대목이다. '줄속'(拙速)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나마도 대다수 입학사정관은 비정규직이다. 일정기간 뒤 국고지원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 대학은 전임 사정관 채용(採用)에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진심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국고지원에 관계없이 대학이 감당할 수 있는 전형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비율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정규직 입학사정관 채용 계획도 분명히 해야 한다. 제도의 성패여부가 사정관의 전문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우리교육의 병폐(病弊)인 문제풀이 중심, 암기위주의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선발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성적보다는~'이라고 하

던 이야기가 이제는 '성적 뿐만 아니라~'로 바뀌고 있다. 점수 최저기준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일부 대학에서는 1단계는 성적기준으로 3배수 정도를 선발하고 2단계 서류 심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 교육과정이 다양화 되어 있지 않은 여건에서 아이들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점수 경쟁을 위한 공부를 하고 또 다시 학교밖에서, 비용을 들여 '다양한' 경력과 자료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토익, 토플, 올림피아드 수상경력을 요구하는 사정관제를 위해 학원으로 가야 한다. 사정관 전형을 대비해야 하는 짐이 하나 더 늘어난 꼴이다. 늦었지만 대학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우리 아이들이 처한 이러한 교육현실을 감안하여 입학사정관 뿐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전형 방식 마련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深思熟考) 해주길 바란다. 입학사정 사물레이션을 통한 준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 또한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한다. 부실한 제도 적용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사설

대학평가가 남긴 과제

중앙일보가 지난 23일 발표한 '2009 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이 종합순위 27위에 그쳤다는 소식이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순위이다. 하지만 동국인들이라면 이 결과에 만족하거나 고무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03년의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이라는 위상(位相)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순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간지에서 시행하는 대학평가가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요소일 수 없다. 동일한 대학이라도 일간지마다 평가 가중치가 달라 순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27위라는 순위는 우리대학의 경쟁력과 외부에서 보는 동국대의 평판을 증명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결과를 지켜본 모든 동국인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못해 이제 분노(憤怒)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대학평가에서는 국제화 부문만 상승했을 뿐 교수연구 성과, 교육여건 부문 등 우리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학평가에서 가중치가 부여된 교수연구 분야의 경우 거의 모든 부분에서 40위권 밖의 성적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평가수치에 나타난 교수 1인당 한 해 평균 논문 편수가 1편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SCI, SSCI, A&HCI 피인용수 또한 현저히 낮아 교수들이 집필한 논문의 양과 질이 모두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유수의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대학들도 교수들이 연구성과를 내기위해 밤낮으로 몰두하지만 우리대학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단순히 27위라는 순위를 차지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점차 상위 순위의 대학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평가에서는 상위 몇 개의 대학을 제외하곤 총점이 100점 이하였고, 점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대학이 좀 더 노력했으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였다. 반면 2009 대학평가에서는 순위별로 점차 점수 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타 대학들도 우리대학만큼, 혹은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대학의 발전 속도가 지금과 동일하다면 향후 대학평가 순위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발전정책이 걷는 속도였다면 이제는 뛰어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시간낭비를 한다면 격차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力不足)이다. 단순한 개선이 아닌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아리

이정민 기자
jeong0424@dgu.edu

기우(杞憂)

▲기우(杞憂)란 말이 있다. 옛날 중국의 기국(杞國)에 하늘이 무너지면 몸 돌 바가 없을 것이라 걱정하여 침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하루를 근심과 괜한 걱정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며 지냈다. 하루는 이를 불쌍히 여긴 사람이 그 자를 찾아와 하늘이 무너지 일은 없다고 깨우쳐 주었고, 이에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 자는 근심을 풀고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의 통합(統合) 및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지난 21일 까지 이들 동안 치러진 조합원 투표에서 노조 통합엔 89.6%, 68.4%가 민주노총 가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 정신을 이어 끊임없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부정부패(不正腐敗)를 감시하는 데에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이기주의적인 이익집단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 정부가 보수언론과 함께 총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이토록 불쾌감을 드러내며 불만을 운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통합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거뜬히 넘어서게 된다. 민주노총은 제 1노총으로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더 많은 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민주노총의 입김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인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에 대하여 선거의 불법성을 운운하며 공무원노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협박성 발언 및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에 가입한 것은 왜일까?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정부는 정부기관의 공공성은 뒷전에 둔 채 마치 기업을 경영하듯이 효율성만을 앞세워 공무원들을 몰아 붙였다.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壓迫)속에서 공무원들의 불만과 반감은 커져만 갔다. 이러한 정부의 마구잡이식 구조조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합 공무원 노조는 민주노총의 가입을 선택하게 됐다.

▲사실 어떤 노조이든 상급단체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이 정하고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권리다. 우리의 법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비난받을 일이라도 범죄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정부가 흑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일을 빌미삼아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으려 한다면 하늘이 무너지라 두려워 하던 기나라 사람처럼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대학평가 종합순위 27위

백선아 기자 littleche@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웅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사람이 좋아진다, 학교가 좋아진다!"

U-peers를 소개합니다.
U-PEERS는 University Peers Counselor 약자로 동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양성하는 공식 또래상담연호 단체입니다.

대학생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친구
가슴 깊은 이야기를 갈 들어줄 수 있는 친구
혹시, 이런 친구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 우리에겐 U-peers 가 있습니다 -

성공한 사람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돕기 위한 좋은 멘토가 되기위해서
심리상담, 멘토링, 리더십 등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준비된 좋은 녀석들, U-peers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날,
언제든 저희 U-peers를 만나러 오십시오.
아름다운 동행이 되고자 저희는 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멘터 및 상담문의 : 본관3층 학생상담센터, 02)2260-3932

학생경력개발원 학생상담센터

글쓰기센터 상담 프로그램

글쓰기는 독서와 배움의 성찰적 표현입니다.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모든 학문의 기초 소양입니다.

지금 글쓰기센터에서는 교양교육 보고서 및 일반보고서, 취업 자기소개서 등과 관련된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쓰기센터 상담 연구원)

전임연구원	서희원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9년 문화일보, 세계일보 문예평론으로 등단
객원연구원	복도훈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5년 <문학동네> 문예평론으로 등단 2007년 제52회 현대문학상 평론부문 수상
객원연구원	조형래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8년 경향신문 영화평론으로 등단
연구조교	유동순	동국대 국어교육학 석사과정
연구조교	장동준	동국대 국어교육학 석사과정

취업글쓰기상담, 일반보고서상담, 보고서집중상담은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직접 방문, 혹은 udri.ms를 통해 미리 상담 신청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글쓰기센터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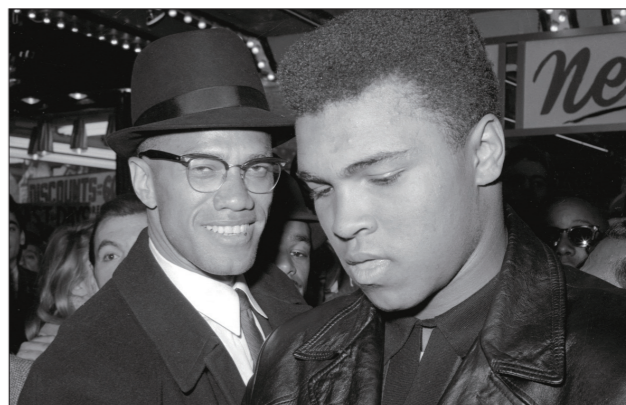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전화 2260-3380 홈페이지 <http://writing.dongguk.edu>

금주의 식단

동국관	월(9/28)	삼선적구이(2200)/치킨가스(2500)/달걀바소스볶음밥(2200)/부대찌개(2500)
	화(9/29)	오징어떡볶이(2000)/돈가스(2500)/참치김치볶음밥(2200)/영양갈비탕(3000)
	수(9/30)	탕수육(2200)/그루터기정식(3000)/얼무비빔밥(2200)/육개장(2500)
금(10/1)	목(10/1)	햄구이(2000)/치즈돈가스(3000)/돈삼겹두루치기(2200)/순만두국(2500)
	금(10/2)	추석명절
상록원	월(9/28)	낙지떡볶음(2200)/치즈돈가스(3000)/치킨굴소스덮밥(2200)/김치치즈소박(2500)
	화(9/29)	돈육계란장조림(2200)/치킨가스(2500)/매운오삼볶음밥(2200)/설렁탕(2500)
	수(9/30)	미트볼계란조림(2000)/상록원정식(3000)/참치김치덮밥(2200)/순대국밥(2500)
아리수	목(10/1)	불고기숙주볶음(2200)/돈가스(2500)/중국식볶음밥(2200)/돈갈비김치찌개(2500)
	금(10/2)	추석명절
해화관	월(9/28)	오삼불고기덮밥(2200)/해물치즈덮밥(2200)
	화(9/29)	낙지콩나물비빔밥(2200)/버섯육개장(2000)
	수(9/30)	달걀비빔밥(2200)/간짜장(2000)
금(10/1)	목(10/1)	참치김치덮밥(2200)/날치알회덮밥(2200)
	금(10/2)	추석명절
금(10/2)	월(9/28)	산채비빔밥(2200)/돈가스(2500)/미파두부덮밥(2000)
	화(9/29)	유산술덮밥(2200)/김치치즈소박(2500)/치킨볶음밥(2200)
	수(9/30)	낙지덮밥(2200)/치즈돈가스(3000)/쇠고기당면볶음(2200)
금(10/1)	목(10/1)	달고기비빔밥(2200)/참치전골(2500)/햄김치볶음밥(2200)
	금(10/2)	추석명절



▲ EIDF 부대행사 디렉터 클래스의 모습



▲ 전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EIDF 출품작들

전세계에서 몰려온 명품 다큐들의 향연 EIDF

20개국에서 건너온 50여편의 다큐 상영과 다양한 부대 행사 열려

‘다큐멘터리는 지루하다’
다큐멘터리는 현실 세계를 다룬다. 항상 마주하는 현실 세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지루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큐는 드라마, 영화보다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요소가 있다! 꾸밈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회에 대한 솔직한 시선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의 드라마틱함을 맛보고 싶은 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가슴 뭉클한 휴머니즘을 느끼고 싶은 자! 해외에서 건너온 명품 다큐들을 맘껏 포식해보고 싶은 다큐 매니아!

매년 이맘 때쯤 개최되는 ‘EBS 국제다큐영화제’(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이하 EIDF)를 눈여겨보자.

EIDF 2009는?

EIDF는 EBS 방송국이 다큐멘터리 시대 정신을 계승(繼承) 하고, 세계 소통의 장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04년 처음 개최됐다. 올해 여섯 돌을 맞은 2009 EIDF는 ‘지구, 더불어 사는 곳’이란 주제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간 진행됐다. 과거 행사와

비교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의 2009 EIDF는 다큐 상영 외에도 ‘감독과의 대화’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매년 EBS는 EIDF 기간 동안 정규 프로그램 대신 출품된 다큐멘터리들을 방영(放映)한다. 이번 2009 EIDF에서는 지난해보다 편성 시간을 평균 1시간 늘려 약 하루 9시간 이상 EBS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더불어 2009 EIDF에서는 역대 최고로 57개국 350편이 출품됐다. 출품작 중 엄선된 20여 개 국 50여 편 작품들 중에는 세계의 유명 다큐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았거나, 색다른 주제와 시도로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작품들이 존재한다. 바다 건너 한국으로 모셔온 명품 해외 다큐들을 통해 전 세계의 현장을 함께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 다큐에 담긴 각국의 생생한 문화와 일상생활을 맛보고 싶다면 EIDF로 향하라.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2009 EIDF는 ▲페스티벌 초이스 ▲해외 수상작 특별전 ▲가장의 눈 ▲다큐, 예술을

열다 ▲카터, 알리 그리고 도르프만 ▲한국 독립다큐전 ▲아름다운 단편 ▲다시 보는 EIDF 2008 등 8개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페스티벌 초이스’는 총상금 2500만원이 걸린 EIDF의 경쟁부문으로 12편의 작품이 소개됐다.

이 해외경쟁 수상작 특별전(特別展)에서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 핫독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다큐를 보고 싶다면 ‘페스티벌 초이스’ 섹션 부분의 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직은 다큐멘터리 장르가 낯설고 긴 상영시간을 견디지 못할 것 같다면 30분 대의 단편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단편’ 섹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화려한 무용과 멋진 음악이 곁들여진 다큐가 보고 싶다면 ‘다큐 예술을 열다’ 부문의 다큐를 보는 것이 안성맞춤! 지난해 EIDF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작품들도 역시 준비돼있다. 지난 해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대상작부터 시청자들이 최고로 뽑은 작품까지 상영한다. 보고 싶은 대로 자신의 다큐 입맛대로 골라볼 수 있는 다양한

다큐가 모여있는 곳이 EIDF이다.

제작자와의 만남도!

다큐 상영 후 그 다큐를 제작한 다큐멘터리리스트와의 Q&A 자리로 바로 이어지는 곳이 EIDF이다. EIDF가 마련한 ‘디렉터 클래스’, ‘마스터 클래스’, ‘특별 클래스’ 자리를 통해 관객들은 다큐멘터리리스트들과 다큐에 담겨져 있는 의미 및 제작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솔(眞率)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EIDF 2009에서는 한국 방송 촬영감독 연합회, 한국방송 작가협회, 한국PD연합회에서 마련한 다큐멘터리 제작 포럼도 개최됐다. EIDF에서는 다큐를 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와의 소통을 통해 다큐의 의미를 토론해보는 자리도 활짝 열려있다.

TV와 온라인에서도

지난 21일 27일까지 EIDF 기간 EBS TV에서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다큐가 방송됐다.

또한 영화제 기간 동안 EIDF 주최 측은 포털사이트 ‘다음’과 연계(連繫)하여 다큐 온라인 상영관을 운영했다. EIDF에서 선정된 다큐 중 일부 작품들은 온라인 상영관에 등록돼 있어 직접 상영관에 오지 못하는 관

객들도 다큐를 볼 수 있다. 지난 4회, 5회 일부 EIDF 다큐 출품작들을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을 배려해 지난 작품들도 온라인 상영관에 등록됐다.

상영 기회가 한번 더!

아쉽게도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영화제가 끝나는 27일 이후에는 EBS TV와 온라인 상영관에서는 더 이상 다큐를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EIDF가 선정한 명품 다큐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EIDF 주최 측은 “‘페스티벌 초이스’ 총상금 2500만원이 걸린 EIDF의 경쟁부문으로 소개된 12편의 작품 중 수상작(受賞作)으로 뽑힌 작품을 10월동안 약 2주 간격으로 화요일마다 대학로에 위치한 ‘하이퍼텍 나다’에서 재상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는 현 시대에 대한 기록임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상적인 삶에 피로하고 지루함을 느끼는 당신이라면, EIDF가 선정한 다양한 다큐를 통해 영상 속에서 다른 세계의 현실을 체험(體驗)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다큐멘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바로 다큐멘터리임을 느낄 때 비로소 다큐멘터리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DUBS 50주년 ‘오십쇼~’ 기념(紀念) 행사 개최

제작영상 상영, 현직 아나운서, 엔지니어와 함께하는 토크쇼 진행

‘공자는 나이 50에 천명(天命), 곧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았다’고 말했다. 팍의 황제고(故) 마이클 잭슨은 50년 간 세계 음반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팔았다. 사마천은 약 50년의 인생 동안 ‘사기’를 집필했다.

50년은 수많은 업적을 세울 수 있는 긴 시간이다. 우리 학교에도 50년이란 시간 동안 동악의 소식을 알리며 학내 언론으로서의 업적을 쌓아온 이들이 있다.

바로 그들은 50년간 일관 삼천 동국인의 소리 역할을 자처하며 오랜 세월을 달려온 동국대학교 교육 방송국(이하 DUBS)이다.

DUBS는 지난 17일 50주년 기념 행사 ‘오

십쇼’를 본관 중앙당에서 개최했다. ‘오십쇼’에서는 DUBS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탐과 노력을 가하며 제작한 영상 ‘마더 송연라’, ‘amimosa’, ‘야누스의 선택’ 3개의 영상 작품이 상영됐다. 더불어 DUBS 출신 동문 이재용 아나운서와 KBS 심인범 엔지니어와의 토크쇼가 마련돼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 자리는 두 동문의 대학생 시절 추억, 아나운서와 엔지니어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는 조언들로 꾸러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아나운서는 “난 대학 시절 학교 방송국 활동에 미쳐 있었던 학생이었다. 지금와

서 생각해보니 대학 생활 때만 이러한 열정을 내뿜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대학생으로서의 열기(熱氣)를 발휘해 보라는 조언을 했다. 마지막 오십쇼에서는 ‘장기하와 얼굴들’이 축하 공연을 해 ‘오십쇼’의 열기를 더했다.

50년이란 시간을 동악에서 보낸 DUBS, 그들은 동악이 존재하는 한 100년 그리고 그 후에도 학내 언론으로서, 새로운 업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모습을 ‘오십쇼’에서 보여주었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 (위) 오십쇼 진행하는 DUBS 아나운서, (아래 좌) MBC 이재용 아나운서와의 토크쇼 현장, (아래 우) 축하공연하는 장기하와 얼굴들

오십쇼 행사 제작영상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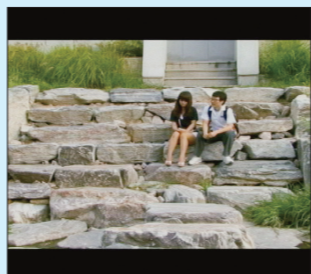
DUBS는 ‘오십쇼’에서 3편의 제작영상을 선보였다. ‘마더 송연라’는 포천시 사랑의 집의 사회 복지사 송연라 씨의 직업적 보람, 어려움을 담았다. ‘야누스의 선택’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지닌 여자와 관음증 남학생의 낯선 이야기를 다뤘다.



▲ 마더 송연라
기획/연출: 변초희, 이수지, 이슬기
촬영/편집: 홍성민



▲ 야누스의 선택
기획/연출: 한상연
촬영/편집: 김원진



▲ amimosa
기획/연출: 신성필, 최아라, 변수현
촬영/편집: 한규태